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12일 만에 또 사망재해

12일 20대, 24일 30대 하청노동자 사망 ... “경영책임자 반드시 구속해야”

옛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인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 열이틀 만에 또 노동자가 사망했다.

1월 24일 도크 안벽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30대 초반의 노동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겼으나 사망했습니다. 앞서 12일 20대 하청노동자가 선박 방향타 제작공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폭발사고로 숨졌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만 2년째인 1월 26일 오전 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오션 중대재해 특별안전점검 ▲경영책임자 구속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등은 “한화오션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했다. 1월 12일 중대재해 뒤 근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노동부 통영지청과 사측에 요구했다” 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작업중지범위를 축소했고, 한화오션은 산업재해 예방 노력보다 축소한 작업중지마저 빠르게 해제하려는 꼼수만 부렸다” 라고 분노했다.

금속노조는 사고현장 조사 결과 ▲실제 작업자 명단과 서류상 작업자 명단이 다른 사실 ▲2인 1조 작

업을 지키지 않은 사실 ▲작업자 보호 연락 체계와 무선통신기를 준비하지 않은 사실 ▲작업 시작 전 보조산소 탱크 착용 점검 미준수 사실 등이 드러나 한화오션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는 “거제조선소에서 계속 벌어지는 중대재해의 원인은 한화오션의 수박겉핥기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과 활동이다” 라면서 “더불어 조선소 현장을 모르는 한화 경영진의 안전 인식과 한계가 근본 원인이다” 라고 비판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사수!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일시 : 2024년 2월 1일(목) 오후 2시

장소 : 한국니토옵티칼 앞(평택시 청북읍 현곡산단로40)

참가대상 : 구미지부, 수도권청권지부, 기업지부 수도권청권 해당 단위 확대간부 및 참가희망 조합원

전국금속노동조합